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받들여 민족자주위업 완수하자

인민사랑의 정치가

이 세상에 꿈과 리상이란 말이 생겨난 때로부터 인류는 거기에 아름다운 희망도 실어보고 마음속위안도 찾으면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천도교에서 말하는 《지상천국》도 바로 만백성의 편안과 복락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러한 꿈과 리상을 반영한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꿈이 좋다고 꿈속에 살수 없고 별이 곱다고 따올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 쉽게 이룰수 없는것이 꿈과 리상이다. 그래서 앞날의 꿈과 리상을 아예 저버리거나 잃어버린채 참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지금 우리 조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는 봄날의 숲처럼 부풀어오르는 기쁨과 희망을 안고 누구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하나하나 꽃피워가는 가슴벅찬 현실속에 살고있다. 하루밤 자고나면 어디어디에 인민을 위한 휴식터와 공원이 새로 꾸려졌다는 소식이 날아들고 또 하루밤 지나면 과학자들을 위한 새 거리가 일떠선다는 소식, 본래있게 창조되고 단숨에 솟구쳐오른 물놀이장과 승마구락부, 스키장과 같은 상상으로 해보지 못했던 창조물들에서 인민들이 기쁨과 랑만의 웃음꽃을 피운다는 소식, 말 그대로 들리는것은 기쁨의 소식, 보이는것도 환희의 절경이다.

천도교정경에는 만년에 대

일변이, 천년에는 중일변이, 백년에는 소일변이 오는데 그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공화국에서는 100년, 10년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더욱 눈부서 예상하기조차 힘든 변들이 련이어 일어나니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가, 철세위인을 모서 이 땅에 펼쳐지는 최한한 현실이다.

얼마전 내가 만나본 한 해외동포가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정치에서는 오랜 경험이 통하기 마련이고 정치경륜의 부패가 인기도를 많이 좌우하는 법인데 어떻게 되어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이북동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운명의 구세주로 각광을 받고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에게 한마디로 말해주었다. 그것은 원수님께서 너무도 출중하시고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령도자이기때문이라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것은 그이의 천품이고 정치의 핵이며 공화국의 무궁무진한 힘과 불멸성의 뿌리라고 생각한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 설계를 하나 해도 인

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시하시고 거리를 일떠세워도 인민을 위한 거리를 일떠세우시며 병원을 건설해도 인민을 위해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문수기능회복원과 같은 최상급의 병원들을 건설해주시는 원수님이시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이께서 제일먼저 만나보시는 사람들도 평범한 인민들이고 병사들이며 언제나 제일 줄거들으시는 말도 인민의 목소리, 제일 많이 하시는 표현과 말씀도 《인민》이라는 표현, 인민생활과 관련한 말씀이시다.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였는가.

세상에는 나라가 많아도 인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하늘로 떠받드는 나라는 오직 우리 공화국뿐이다. 인민은 그런 정치를 펴시는 회세의 위인들을 하늘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왔다. 인민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간직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분들처럼 인민을 받들겠다고 하시였으니 인민을 위하는 그 헌신적복무의 높이와 세계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게 마음껏 물놀이

를 하며 기쁨과 생활의 정서를 꽃피우도록 하시려고 세계적인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맡기하시고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그곳을 찾으시여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신 하나의 사실만 놓고서도 원수님의 정치가 얼마나 인민을 위하는 사랑의 정치인가 하는것을 가슴절절히 느끼게 된다.

예로부터 묘주로는 고인의 혈육, 묘를 관리하는 자식들의 이름을 써넣어왔다. 그 묘주로 혈육이 아닌 한 나라 최고령도자의 이름이 적혀진 때는 동서고금에 없는줄로 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투임무수행중에 바다에서 희생된 해군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위해 돌사진이 새겨진 장중한 합장묘를 조성하도록 해주시고 묘주로 친히 자신의 이름을까지 새기시었다. 내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유가족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고 하시며 회생된 전사들의 사전을 손수 한장한장 보고 또 보시는 원수님의 모습 앞에서, 떠나간 전사들을 만나보시러 찾아오셨던 그날 돌사전을 쓸어도 보고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원수님을 뵈오면서 진정 격정의 눈물을 머금지 않은 사람이 거의나 없었다. 병사들을 자신의 살신으로 여기고 그 살점이 떨어져나가는것처럼 아픔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그런 마음가짐이나 행동가짐이 나오지 못한다. 이런 령도자를 왜 병사들과 인민들이 따르지 않았는가.

정말 원수님은 온 나라 인민의 운명을 맡아 보살펴주

시고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 만백성의 하늘이시다.

우주에 닿은 국력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전우, 동지의 뜨거운 세계에 떠받들린 불패의 군력은 나라를 지키며 황홀한 문명향유의 주인공이 평범한 인민이고보면 공화국의 모든 현실과 앞으로 펼쳐질 모습은 그대로 우리 천도교에서 내세운 《인내천》, 《보국안민》의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랑과 믿음으로 일심단결의 화원을 가꾸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비약과 번영의 찬란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출중한 정치가, 회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의 기쁨과 영광은 끝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외국언론들에서 세계적인 명인으로 높이 칭송하고 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목소리가 남조선에서 더욱 높아가는것도 창조와 기적을 수놓아가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회세의 위인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이고 찬양이라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사랑이 있는 곳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하

였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당을 따라만나시련을 헤쳐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인민사랑의 정치에 떠받들려 오는 천지개벽, 천도개벽을 이루어가는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머지않아 이 땅에서 행복의 미래를 앞당겨 부르며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

송고한 그 념원을 안으시고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강산에 뜻깊은 광명성절이 왔다.

민족축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은 아침 사람들은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이 땅우에 존엄 높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워 온 나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럽없이 잘살게 하 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이였고 념원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생전에 늘 자신의 생생을 하나로 쥐

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 인민들에게 영광을 드리고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가지까지 초강도강행군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과 로동자들이 만든 현대적인 기계가 정말 멋있다고 하 시면서 아버지장군님께서 보 시였으면 대단히 만족해하시 었을것이라고, 장군님께서 는 이 공장에 오실 때마다 늘 정신이 반짝 든다고 말씀하군 하시였는데 자신께서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오늘

빛나게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2년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일러들을 찾으시며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주체101(2012)년 1월 중순 평양민속공연건설장을 비롯한 인민군대가 맡고있는 여러 건설대상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건설대상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아버지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건축물들의 시공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무슨 일을 구상하고 어떤 대상을 하나 건설하여도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을 어떻게 하면 현실로 꽃피우겠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순결한 총정의 세계가 구절 구절 맥박치는 말씀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 문제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마다 그러도 기뻐하시고 만족해하군 하신다.

언제인가 어느 한 기계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만든 현대적인 기계가 정말 멋있다고 하 시면서 아버지장군님께서 보 시였으면 대단히 만족해하시 었을것이라고, 장군님께서 는 이 공장에 오실 때마다 늘 정신이 반짝 든다고 말씀하군 하시였는데 자신께서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오늘

공장을 돌아보며 새 기계들을 보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장군님께 이 성과를 꼭 보고드리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완공단계에 이른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장군님의 천연색석고립상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장군님께서서 훌륭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

인민의 행복, 그것은 장군님의 념원이였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날과 달을 이어 현지지도강행군길에 계시며 자신의 정열을 다 바쳐 장군님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는것이다.

그이의 코나로 로고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이 땅우에는 류정원,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인민야외빙상장, 통일거리운동센터,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날수 있었고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인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의 행복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는 선군조선의 변혁기를 맞이할수 있었다.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은 사람들에게 말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머지않아 이 땅에서는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지고 통일강국의 위대한 력사가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본사기자 김강철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여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굽어치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뜻깊고 념원인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예석하게 잃고 흘러온 나날들을 돌이켜볼 때 모두의 가슴속에 떠오르는 친근한 모습, 그것은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장군님과 똑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화국인민은 령도자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여 모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걸어온 영광의 그 길에서 심장의 박동도, 진군의 발걸음도 그이와 함께 하며 높이 받들여 모신것이다.

피눈물의 12월에 비통과 슬픔에 잠겨 쓰러진 인민을 장군님의 사랑으로 품어안아 일떠세우신분, 장군님의 따뜻한 미소로 원아들의 연손도 녹여주시고 풍랑세찬 파도를 넘어 평범한 군

관의 아들생일도 축하해주신분, 새집들이 가정도 찾아주시며 온 나라 가정들에 장군님의 축복을 그대로 안겨주신분...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장군님 그대로 인민들의 마음속에 친근한 아버지로 오시였다.

인민은 경애하는 그이께 완전히 매혹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이며 그이의 손을 잡고 농을 줄 모르는 《강성원》의 로동자들, 그이 타신 배를 바레드리려 벅속까지 얼어드는 바다물에 뛰어드는 월내도의 군인들...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흠리는 이 나라 인민의 눈물 은 그이께 드리는 감사이고 매혹과 흠모의 분출이다.

공화국인민들이 부르는

《그이 없인 못살아》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선율이 아닌 녀의 웨침인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받들여 모시던 그때처럼 믿고 따른다.

사상과 뜻과 정으로 똬똘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더욱 순결해지고 백배로 강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고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그이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밝혀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간다.

장군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여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국가를 일떠세울 드림없는 맹세가 비약의 불보라를 일으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념원하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떠세우실 강성국가의 밝은 래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본사기자 김정혁

김정은각하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이시다

국 제 사 회 계 가 격 찬

사랑과 정으로 병사들과 인민들을 따듯이 품어주시는 그이의 품모에 누구나 매혹되고있다.

《로씨아의 공산주의자들》

당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령도자에 대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사랑과 흠모심에 세계가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을 만나시어서는 그들과 뜨겁게 포옹하시고 다정히 손잡고 걸으시며 귀속말도 나누신다.

어린이들을 한없이 사랑하며 그들의 불도 다독여주시고 무릅없이 올리는 청도 들어주시는분이 바로 그이이다.

그이께서는 평범한 병사들, 인민들과 허물없이 어깨를 걸고 팔을 끼고 기념사진도 찍으신다.

해주시였으며 조의행사에 참가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였다.

날이 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계는 김정은령도자의 인민사랑의 품모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송고한 화폭은 그이의 투철한 인민관과 때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들도, 령도자도 있다는것이 그이의 좌우명이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은 인민사랑이며 이것은 정치활동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로 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의 령도밑에 오늘 조선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민주공공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열렬히 따르며 흠모하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시며 인민들은 령도자를 위해 총정을 다 바친다.

오늘 조선은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강해지고있으며 그이께서 펼치시는 인

민사랑의 정치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이탈리아의 지파 아베르타 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커다란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조선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 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이시야말로 인민의 수령, 위대한 아버지이시다.

세 개의 명 이 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본사기자

